

甘山寺 阿彌陀佛像과 彌勒菩薩像 造像記의 연구

남동신(南東信)

I. 서론

II.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의位次

1. 두 석상의 배치와 위치
2.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위치 비판
3.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위치 제언

III. 조상기의 판독과 문장 구조

1. 판독
2. 문장 구조와 내용
3. 찬자와 서자
4. 후기(5-②)의 작성자

IV. 造像主, 佛事, 그리고 發願

1. 조상주
2. 造像과 發願

V. 결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金石清玩』연구, 『한국중세사연구』34(2012); 『天宮으로서의 石窟庵』, 『미술사와 시각문화』13(2014); 『佛敎의 理想世界로서의 佛國寺』, 『新羅文物研究』12(2019) 등

본 논문에서는 甘山寺의 阿彌陀佛像과 彌勒菩薩像의 光背에 각각 새겨진 造像記를 재검토함으로써, 통일신라기 불상을 대표하는 걸작이자 기준작인 두 상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 장에서는 ‘근대적 발견’ 이래 지난 100년간의 연구 성과를 네 시기로 나누어 검토한 다음, 필자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II 장에서는 기왕의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位次를 비판하고 조상기를 재검토한 후 두 상의 배치와 외관에 근거하여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위치차가 옳음을 논증하였다. III 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판독 불능으로 남았던 두 글자를 처음으로 판독하고, 이를 포함하여 기존에 의미가 불분명하였던 몇몇 구절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아울러 아미타불상조상기와 미륵보살상조상기의 문장 구조를 비교하고 조상기의 찬자와 서자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書體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끝으로 IV 장에서는 조상기의 내용을 造像主와 造像 및 發願으로 나누어 재검토하였다. 특히 필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라는 조상기의 구절이 상투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金志誠이 돌아가신 부모를 모두 화장해서 동해 바닷가에 산골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추모하려 해도 그 마음을 의지할 물질적 標識가 없었다. 그래서 만년의 김지성은 甘山田莊을 희사하여 절로 삼고, 여기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돌로 각각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을 조성하되, 부모님의 실제 모습을 투영하여 像의 尊容을 사실적으로 조각하고 그 頂穴에 부모의 상징물을 안치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두 상 가운데 특히 미륵보살상은 冠에 化佛이 있는 立像인데, 미술사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圖像의 미륵보살상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도상적 특징만 본다면 십중팔구 관음보살상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반대로 조상기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륵보살상이다. 김지성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來世에는 도솔천에 上生하기를 기원하였기에 도솔천을 주재하는 미륵보살상을 만들기로 하되, 그 상에 慈母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하여 慈悲의 화신인 관음보살상의 도상을 취했던 것이다. 이것은 아미타불상도 마찬가지여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회구하여 아미타불상을 조성하되 모든 불교도의 慈父인 석가여래상의 도상을 차용하였다고 유추된다. 후대의 추모자들이 정면에서 상[Image]을 친견하고 뒤로 돌아가서 조상기[Text]를 읽었다면, 그들은 김지성의 부모님을 향한 추모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였을 것이다.

주제어: 김지성, 감산사, 아미타불상, 미륵보살상, 조상기, 정혈, 효

甘山寺 阿彌陀佛像과 彌勒菩薩像 造像記의 연구

남동신(南東信)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I. 서론

본고에서는 甘山寺의 石造阿彌陀佛立像(이하 아미타불상)과 石造彌勒菩薩立像(이하 미륵보살상)의 造像記를 역사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조상기는 佛像[Image]을 조성하게 된 緣由와 經過를 기록한 記文[Text]으로서, 한국 고·중세사 이해에 중요한 역사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감산사의 두 石像은 조형미에서 통일신라기를 대표하는 걸작일 뿐만 아니라, 光背에 새겨진 조상기를 통하여 造像主와 조상의 목적 및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어서, 일찍부터 학계가 통일신라기 불상의 기준으로 주목하여왔다.

감산사 두 석상에 대하여는 1915년의 이른바 ‘근대적 발견’ 이래 지난 100여 년 동안 역사학, 미술사학, 국어학 등 유관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15년부터 1920년대에 걸쳐 감산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이 朝鮮總督府에 의해 새롭게 세상에 알려진 시기이다. 조선총독부는 한일합방 5주년을 기하여 식민통치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이하 공진회)를 개최하였다.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총독부 참서관실의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와 스에마쓰 구마히코(末松熊彦)가 경주의 감산사지에서 두 석상을 발굴하여 1915년 3월 京城 景福宮으로 이전하였다.¹ 두 석상은 공진회 기간(1915. 9. 11.~10. 31.) 동안 신축 미술관에 진열되었는데, 미술관은 공진회가 끝난 직후인 12월 1일 그대로 조선총독부

* 본 논문은 국립경주박물관 주최 심포지움(2020. 10. 30.) “통일신라 문자의 세계”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中吉功, 「新羅甘山寺石造彌勒·阿彌陀像について」, 『朝鮮學報』9(1956), p.275; 「甘山寺石造彌勒·阿彌陀像雜攷」, 『新羅·高麗の佛像』(東京: 二玄社, 1971), p.179.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른다.² 이처럼 첫째 시기는 총독부의 日人 官僚들이 주도하여 두 석상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하는 데 치중한 바, 당시의 사진 자료와 안내문은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순서에 따랐음을 잘 보여준다.³

둘째는 1930년대 들어가면서 在朝 일본인 官學者들 —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카쓰라기 스에지(葛城末治),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 에 의한 연구들이다. 먼저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감산사 상의 조상기가 『三國遺事』에 인용된 사실에 처음 주목하였으며, 아울러 『冊府元龜』에 보이는 ‘新羅王金志誠’이 실은 ‘신라왕(이 파견한) 김지성’임을 처음 주장하였다.⁴ 이어서 아유카이는 한국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조상기 중에서도 이두식 한문을 처음으로 해독하였다.⁵ 그리고 참사관실의 금석문 수집 및 『조선금석총람』 편집에 깊이 관여한 카쓰라기는, 위의 두 글을 반영하여 조상기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였다.⁶

흥미롭게도 세 사람 모두 조상기에 근거하여 두 석상의 순서를 기존과 반대로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순으로 역전시켰다. 그런데 조상기의 판독과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순서는 이보다 앞서 1919년에 간행된 『朝鮮金石總覽』에 이미 보인다. 실로 1930년대의 일본인 관학자들의 연구는 이 판독문에 근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언급하고자 한다.

셋째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로서 학술사적으로 의미있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나카기리 이사오(中吉功)는 『삼국유사』를 근거로 미륵보살상이 甘山寺 金堂의 본존임을 확정하는 한편, 아미타불상은 講堂의 본존임을 처음 주장하고 그 근거로 『無量壽經』을 제시하였다.⁷ 이 新說은 문명대에 의해 한층 강화되었다. 그는 미술사학의 방법론으로 신라 法相宗의 성립 문제를 다룬 대작에서 두 상의 기법과 양식을 동아시아 불교미술의 시야에서 본격적으로 비교 고찰하였으며 조상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특히 그는 창건주 김지성이 읽은 『瑜伽師地論』이 법상종의 소의경전이자 그 설법주가 미륵보살임에 주목하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을 각각 금당과 강당의 본존으로 봉안한 것을 신라 법상종 미술의 특색이라고 주장하였다.⁸

2 공진회에 대하여는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둘(서울: 하늘재, 2003), pp.130-139 참조. 공진회 개최부터 조선총독부박물관 설립에 이르는 과정 및 고적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47-60 참조.

3 『朝鮮彙報』1915년 9월호(京城: 朝鮮總督府, 1915), 口繪: 三體佛像.
『博物館陳列品圖鑑』第2輯(간기 미상), ‘阿彌陀如來像’; 第3輯(간기 미상), ‘彌勒菩薩像’.

4 末松保和, 「甘山寺彌勒尊像及び阿彌陀佛火光後記」, 『朝鮮』211(1932); 『新羅史の諸問題』(東京: 東洋文庫, 1954), pp.450-460에 수정 재수록.

5 鮎貝房之進, 『雜攷』第6輯 上編(京城: 近澤出版部, 1934), 13左-24右; 『朝鮮金石瑣談(外)』(서울: 아세아문화사 편집 영인, 1979), pp.420-441에 수정 재수록.

6 葛城末治, 『朝鮮金石攷』(京城: 大阪屋書店, 1935), 「18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19 甘山寺彌陀如來造像記」.

7 中吉功, 앞의 책(1971), pp.179-194.

8 文明大, 「太賢과 茸長寺彫刻」, 『白山學報』16(1967); 文明大,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과 그 美術(上)—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62(1974a); 文明大,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과 그 美術

한편 새로 출범한 문화재위원회가 1962년 12월에 감산사의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을 각각 국보 제81호와 제82호로 지정함으로써,⁹ 두 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위의 연구 외에도 동아시아 불교조각사의 시야에서 아미타불상 옷주름의 양식적 기원을 추적한 다든가,¹⁰ 신라의 葬制와 관련하여 조상기의 散骨을 주목하는 등,¹¹ 연구 시야를 확장하고 주제를 다각화한 성과도 발표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이다. 이 시기 동안 연구 성과가 숫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역사학과 미술사학 및 국어학 분야로 연구가 다변화되었다. 역사 분야에서는 造像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¹² 미술사 분야에서는 앞 시기의 '법상종 미술의 특색'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두 석상의 양식적 기원이라든가 미륵보살상의 경전적 배경에 대한 심도있는 모색이 있었다.¹³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광배의 명문을 촬영하고 그것을 탁본과 대교하여 『조선금석총람』 이래 근 100년 만에 두 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의 판독문을 확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⁴

이상에서 개관하였듯이 지난 100년간의 연구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발굴, 전시, 판독에서 출발하여 역사학과 미술사학 중심으로 조상기와 像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金志誠(또는 金志全)이 719년 또는 720년에 甘山田莊을 회사하여 절로 삼고 그곳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을 1구씩 조성한 사실 관계는 대략 밝혀졌다. 본고는 이들 선행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下)—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63(1974b). 이상은 文明大, 『원음과 고전미』(서울: 예경, 2003), pp.71-110 및 pp.111-138에 재수록.

9 『官報』 1962년 12월 29일, <문교부고시 제169호(1962년 12월 20일)>; 문화재청 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2020. 9. 23. 검색.

10 金理那, 「新羅甘山寺如來式佛像衣紋との日本式佛像との關係」, 『佛教藝術』110(1976); 金理那,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教彫刻 樣式」, 『考古美術』154(1982). 이상은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서울: 一潮閣, 1989), pp.206-238 및 pp.146-205에 재수록.

11 齋藤忠, 「新羅의 葬制から見た甘山寺跡石造阿彌陀如來像·彌勒菩薩像銘文の一解釈」, 『朝鮮學報』99·100合(1981).

12 金英美, 「聖德王代 專制王權에 대한 一考察—甘山寺 彌勒像·阿彌陀像銘文과 관련하여—」, 『梨大史苑』22·23合(1988);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서울: 一潮閣, 1997), p.46, pp.137-139, p.283;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서울: 대원사, 2007), pp.231-353; 김영미, 「삼국유사」 「남월산」조와 감산사 미륵·아미타상 조상기의 재검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36(2015a); 김영미, 「감산사(甘山寺)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 조상(造像)의 경전적 배경」, 『韓國思想史學』50(2015b).

13 蘇鉉淑, 「甘山寺 彌勒菩薩立像과 阿彌陀如來立像 研究」(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黃億境, 「甘山寺 石造彌勒菩薩立像과 石造阿彌陀佛立像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주형, 「미륵을 만나다: 감산사 미륵보살상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해명」, 『미술사와 시각문화』9(2010); 소현숙, 「甘山寺 彌勒菩薩立像 研究—着衣 表現을 中心으로—」, 『불교미술사학』17(2014a); 소현숙, 「統一新羅 佛教彫刻과 唐代 畫風—甘山寺 阿彌陀佛立像과 彌勒菩薩立像을 中心으로—」, 『미술사논단』38(2014b); 정송이,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도상학적 연구」(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4 신소연·김영민, 「RTI 촬영을 통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명문 검토」, 『美術資料』8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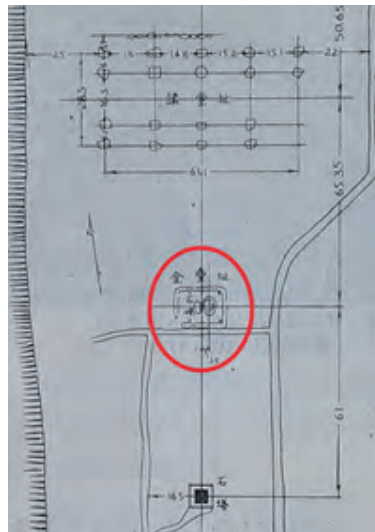
첫째, 1930년대 이래 모든 연구자들은 조상기를 근거로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위치에 따라서 연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두 석상의 배치는 최초 진열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그 위치만 바뀌었을 뿐 아니라, 공적인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중시하는 도록류에서는 근래까지도 종종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순서를 따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선은 결국 감산사의 두 석상, 나아가 造像主人 金志誠의 의도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조상기를 재검토함으로써, 현재의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位次를 비판하고 향후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위치에 따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자료와 관련하여, 우선 조상기에서 지금까지 판독 불능으로 남은 마지막 두 글자를 새롭게 판독한 전문을 제시하고, 이를 포함하여 기존에 해석이 분분하였던 구절을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두 석상에 대하여 최신의 상세한 실측치를 근거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의 位次

1. 두 석상의 배치와 위치

감산사의 두 석상은 1914년 10월경 발굴되었는데¹⁵ 발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건축사가인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가 1929년 8월경에 감산사지를 실측한 도면이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따름이다(도 1).¹⁶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공진회 때의 도면과 사진이다. 공진회 개막 직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 미술관 1층 중앙 계단을 사이에 두고 계단 아래 오른쪽(東)에 아미타불상, 왼쪽(西)에 미륵보살상이 배치되었으며, 사진 설명문에서는 ‘아미타여래와 미륵보살의 입상’이라고 하여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도 2).¹⁷ 공진회 당시 미술관에 진열할 미술 및 고고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 제13부’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였는데, 심사부장은 바로



도 1. 감산사 금당지(藤島亥治郎, 1930)

15 『毎日申報』陰曆 甲寅 八月 二十日 (二) 『共進會와 慶州石佛』

16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其三)』, 『建築雜誌』44輯(第533號, 1930), p.198, 第131圖. 한편 근래 이루어진 감산사 추정 법당지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창건 당시의 유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나말여초와 고려시대의 두 차례 중·개축 당시 조성된 초석과 적석 시설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中央文化財研究院, 『慶州 甘山寺 法堂址』(2001), pp.19-23.

17 『朝鮮叢報』1915년 9월호 口繪; 三體佛像; 1915년 10월호 『共進會』, p.17, p.28.



도 2. 三體佛像: 삼릉계 약사불상(중앙)과 감산사 아미타불상(향우)·미륵보살상
(『朝鮮叢報』, 1915년 9월호, 口繪)



도 3. 삼체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29513), 1927년경 촬영

스에마쓰 구마히코가 맡았으며, 참서관실의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와 鑑賞家로서 촉탁직에 있던 아유키이 후사노신이 심사관으로 참여하였다.¹⁸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두 상의 수습부터 진열까지 스에마쓰 구마히코가 시종 주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함방 이후부터 李王職 소속의 사무관으로서 李王職博物館의 주임—사실상의 박물관장—을 계속 맡으면서, 공진회 때는 제13부의 심사부장을 겸하였고 1920년대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이처럼 1910년대~1920년대에 그는 박물관의 고고 미술 분야에서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공진회 때의 ‘좌-미타, 우-미륵’의 배치는,¹⁹ 두 석상이 폐사지에 얹어져 있었을 때의 원래 배치를 스에마쓰 구마히코가 존중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공진회 때의 ‘좌-미타, 우-미륵’의 배치는, 공진회 미술관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식민기 내내 그대로 이어졌다(도 3).²⁰ 그리고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이 출범한 이래 여러 차례 박물관이 이사하는 동안 진열실의 입지조건에 따라 불상의 향은 바뀌었어도, ‘좌-미타, 우-미륵’의 배치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국립중앙

18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권2(朝鮮總督府, 1916), p.12, 「審査職員並審査分掌; 第十三部 美術及考古資料」

19 본 논문에서 ‘좌-미타, 우-미륵’ 위치 설정은 불상의 관점이다. 참배자 관점에서의 위치 설정은 향좌, 향우로 표시하였다.

20 1915년 12월 조선총독부박물관 설립 당시 작성한 《所藏品目錄》의 정리번호 ‘416 新羅阿彌陀佛立像과 ‘417 소’이 감산사의 아미타불상과 미륵불상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에서 2020년 9월 검색.

박물관의 불상실에서 감산사의 두 상은 정면[西]을 향하되, ‘좌-미타, 우-미륵’의 배치는 한결같다(도 4).

그런데 두 상의 배치가 한결같았던 것과 달리 두 상의 位次는 한 차례 크게 역전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위치는 스에마쓰 야스카즈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는데,²¹ 그 시초는 『金石總覽原稿』(1918)와 『朝鮮金石總覽』(1919)에 이미 보인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금석총람원고』 31책은 『조선금석총람』 간행을 위한 예비 작업의 성과물로서 금석문의 1차 판독 및 교정 사항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서는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의 조성 연대를 각각 719년과 720년으로 비정하고 이를 근거로 ‘15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16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의 순서로 수록하였다.²²



도 4. 감산사 아미타불상(향우)과 미륵보살상, 통일신라 719년,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국보 제82호, 제81호

21 末松保和, 앞의 논문(1932), p.64.

22 『金石總覽原稿』(奎12522, 奎12523) 目錄 및 제1책 참조.

한편 『조선금석총람』의 편찬 사업에서 처음부터 중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카쓰라기이다. 그는 中樞院에 근무하면서, 1913년 봄부터 참서관실의 금석문 수집과 편찬 작업에 종사하였으며,²³ 나중에 『조선금석총람』의 편집도 담당하였다.²⁴ 또한 1922년 12월부터 조선사편수회에서도 근무하였는데,²⁵ 1929년 9월에 修史官補 동료인 스에마쓰 야스카즈와 함께 자료 수집 차 경주를 방문하였을 때 두 조상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기억을 나중에 회상하기도 하였다.²⁶ 카쓰라기는 비록 스에마쓰 야스카즈나 아유카이보다 늦게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논고에서 다른 두 사람의 선행 성과를 인용도 하였지만, 그야말로 조상기 판독과 연구에서 처음부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조선금석총람』에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순서로 두 조상기를 수록한 인물로는 편집을 담당한 카쓰라기가 가장 유력하다.

이와 같이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위치는 조상기를 수록한 1919년 간행의 『조선금석총람』에서 시도되었다. 그런데도 像에 초점을 맞춘 도록류에서는 1920년대 전반까지 여전히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순서를 고수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회가 1926~1929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登錄物件》에 비로소 ‘298 甘山寺彌勒菩薩石像’과 ‘299 同阿彌陀如來石像’의 순서로 등재되었다.²⁷ 이 무렵 스에마쓰 구마히코가 고적조사위원이면서 1922년부터 1933년까지는 博物館協議員도 겸하였다.²⁸ 스에마쓰 구마히코는 아유카이와 공진회 때 제13부에서 함께 심사한 것을 시작으로 1922년부터 박물관협의원으로 같이 활동하였다. 아유카이는 1916년에 박물관협의원이 되었으며, 1934년부터는 스에마쓰의 뒤를 이어 고적조사위원도 겸하게 되었으며,²⁹ 1935~1937년 사이에 카쓰라기도 書記로서 고적조사위원회에 합류하였다.³⁰

요컨대, 감산사 두 석상의 발굴과 전시, 조상기의 판독과 연구를 주도한 스에마쓰 구마히코와 아유카이 후사노신과 카쓰라기 스에지 및 스에마쓰 야스카즈에 의해 늦어도 1920년대 중반에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위치는 조선총독부의 권위로 공인받았다고 하겠다.

23 葛城末治, 앞의 책(1935), 「自序」, pp.2-3.

24 금석문 자료의 수집 및 『朝鮮金石總覽』의 간행 사업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中樞院 編,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京城: 朝鮮總督府, 1938), pp.44-46에 간략히 보고되었음.

25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권10(1923), p.49.

26 葛城末治, 앞의 책(1935), p.210 附記 참조.

27 《登錄物件》(목록번호 96-14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search.do>)에서 2020년 9월 검색.

28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권19(1932), p.485.

29 위의 책, 권21(1934), pp.550-551.

30 위의 책, 권22(1935), p.602; 권23(1936), p.616; 권24(1937), p.663.

2.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위치 비판

유의할 것은 최초 진열 이래 두 석상의 배치는 그대로 둔 채 위치만 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부처가 보살보다 존격이 높은 상식에 비추어볼 때, 조상기에 근거한 현재의 위치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일찍이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감산사 조상기가 『三國遺事』 권3 南月山條에 ‘金堂主彌勒尊像火光後記’와 ‘彌陀佛火光後記’의 차례로 인용된 사실을 처음 주목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위치를 제시하였다.³¹ 이것이 첫 번째 논거로서, 스에마쓰 이후 연구자들은 『삼국유사』의 南月山條를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 위치의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였다.³² 1950년대에 나가기리는 스에마쓰의 견해에서 더 나아가 彌勒尊像 앞에만 ‘金堂主’라고 한 것에 주목하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을 각각 甘山寺의 金堂과 講堂의 本尊像으로 간주하였다.



도 5. 아미타불상(향좌)과 미륵보살상의 뒷면(김규훈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31 末松保和, 앞의 논문(1932) 참조.

32 『三國遺事』의 위 인용문을 현존하는 조상기와 비교하여 그 인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강종훈, 「금석문 자료 활용 방식을 통해 본 『삼국유사』 수록 사료의 성격」, 『역사와 담론』 60(2011), pp.18-27이 유일하다.

그런데 미륵보살상이 甘山寺의 金堂主였다고 할 수는 있어도, 아미타불상이 금당주가 아니라거나 심지어 강당주였다는 견해는 논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물론 또 다른 논거로 『삼국유사』 권3 南白月二聖條에 보이는 ‘금당주-미륵, 강당주-미타’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景德王代의 사실이므로, 이를 한 세대 전의 聖德王代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스에마쓰와 카쓰라기 둘 다 두 석상이 발굴된 지점을 감산사의 금당터로 지목하였음을³³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一然은 왜 『삼국유사』 남월산조에서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순서로 조상기를 인용하였는가? 추측하자면 이렇다. 주지하다시피 漢文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리고 감산사의 조상기는 光背의 뒷면에 각각 새겨져 있다(도 5, 원색도판 2). 두 상의 조상기가 연결되는지 아니면 별개인지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상의 뒤에서 조상기를 본다고 가정하면, 向右[미륵보살상]의 오른쪽 제1행의 첫 자부터 읽어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삼국유사』의 위 인용문은 두 상의 뒤쪽에 서서 취하는 자연스러운 동선을 반영하였다고 추정된다.

두 번째 논거는 조상기에 근거하여 미륵보살상은 719년, 아미타불상은 720년 이후에 각각 조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조선금석총람』(1919)에서 미륵보살상은 719년, 아미타불상은 72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한 이래 몇몇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 예컨대 아유카이는 성덕왕 18년(719)에 미륵상이 완성되고 나서 적어도 2, 3년 지나서 미타상이 완성되었다고 보았다.³⁴ 나아가 문명대는 미륵보살상은 719년경이지만 아미타상은 조상기의 내용과 상의 양식 및 『三國史記』 職官志의 執事侍郎 관련 기사 등을 근거로 경덕왕 6년(747) 이후의 조성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³⁵

그러나 후술하듯이 조상기에서 두 상의 조성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연대는 開元 7년(719) 2월 15일이다. 또한 아미타불상조상기에서는 善業[두 상의 조상]이 마무리된 것이 金志全(金志誠) 생전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두 상 모두 김지성 생전인 719년 2월 15일에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는 造像과 刻字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생겼는데, 조상 활동이 종료된 때와 조상기가 새겨진 때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미타불상조성기 말미에 보이는 ‘720년 김지전 사망’ 기사는 造像 이후의 후기이므로, 이 문장을 포함한 조상기는 720년 이후에 새겨졌음을 시사한다.

33 “金堂址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발굴된 二体の 石佛.” 末松保和, 앞의 논문(1932), p.63; “寺의 金堂에 彌勒, 彌陀의 두 石佛이 있고” 葛城末治, 앞의 책(1935), p.200.

34 鮎貝房之進, 앞의 논문(1934), pp.32-33.

35 문명대, 앞의 논문(1976b), pp.133-143.

3.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위치 제언

이상에서 현재의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 위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이하에서는 몇 가지 논거를 근거로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위치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거는 다음의 두 조상기에 보이는 구절이다(표 2).

捨其甘山莊田, 建此伽藍, 仍造石阿彌陀像一軀.(아미타상조상기, 3-②)

開元七年己未, 二月十五日, 重阿飡金志誠, 奉爲亡孝仁章一吉飡·亡妣觀肖里, 敬造甘山寺一所·石阿彌陀像一軀·石彌勒像一軀.(미륵상조상기, 1)

설총이 찬술한 아미타상조상기에서는 ‘阿彌陀像’만 언급하였으며, 김지성이 찬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상조상기에서는 둘 다 언급하되 아미타상>미륵상의 순서로 언급하였다. 이는 김지성이 아미타불상을 미륵보살상보다 우선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두 번째 논거는 두 상의 배치이다.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1915년의 공진회 이래 현재까지 두 상은 한결같이 ‘좌-미타 우-미륵’의 배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발견 당시의 배치를 존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3세기에 감산사를 방문한 一然이 두 석상의 뒤에서 미륵보살상[向右]>아미타불상의 차례로 조상기를 옮겨 적은 것으로 추론되는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방향이 바뀌어서 아미타불상이 참배객의 向右에 위치하게 되어서 현재의 배치와 부합한다. 따라서 좌-미타, 우-미륵의 배치는 김지성이 감산사를 창건할 당시부터의 배치일 가능성이 높다. 두말할 나위 없이 불교 조형미술에서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우선하여서, 三尊像의 경우 항상 좌협시>우협시의 순서로 칭한다. 좌-미타, 우-미륵의 배치가 김지성의 뜻이라면, 그것은 김지성이 아미타불상을 미륵보살상보다 우선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 세 번째 논거인 外觀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석상에 대한 최초의 실측은 『조선금석총람』에 조상기와 함께 실린 간략한 수치이다. 이후 지금까지 이 자료를 그대로 따르거나 부분적으로 다시 측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측정자마다 측정 대상과 측정치가 다르고 그나마 부분적이어서 크게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다행히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에서 두 상을 상세히 측정하였다. <표 1>의 최신 측정치에 따르면, 상의 높이 즉 머리부터 발까지(C)를 제외하면, 전체 높이(A)나 광배(B) 등의 모든 면에서 아미타불상이 미륵보살상보다 더 크다. 다만 像高만 쥔 경우 미륵보살상이 더 큰 것은 化佛이 새겨진 높다란 髮髻冠 때문이다. 그런데 두 불상 모두 대좌 위에 서 있고 아미타불상의 대좌가 더 높기 때문에, 참배자가 보기에 대좌를 포함한 불상의 키는 아미타불상이 더 크다(C+D)(원색도판 1). 외관상 감산사의 두 석상은 통상적인 불·보살의 三尊像에서 좌협시상을 제외한 모습과 비슷하다.

표 1. 감산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의 法量³⁶

(단위 cm)

	전체 높이(A)	광배 높이(B)	像 높이(C)	머리 높이	頂穴		얼굴	어깨		8각대좌 높이(D)
					지름	깊이		높이	폭	
아미타불상	271.5	210	178	39.5	3.0	2.0	26	132	53	61
미륵보살상	254	201	183.5	50	2.0	1.3	23	132	46	52

* 미륵보살상의 전체 높이는 전신 받침대 속으로 들어간 4cm 정도의 대좌를 포함한 것임

이상에서 조상기, 두 상의 배치 방식과 외관 등을 검토하였듯이, 造像主 金志誠은 참배자에게 아미타불상이 미륵보살상보다 위치가 더 높아 보이도록 조성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조상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Ⅲ. 조상기의 판독과 문장 구조

1. 판독

아미타상조상기는 21행×21자, 도합 389자이며, 미륵상조상기는 22행×18자, 도합 381자이다(부록 3, 4 탭본 참조). 『조선금석총람』은 이 가운데 단 네 글자(아미타상조상기의 두 자+미륵상조상기의 두 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글자를 판독하였다.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신소연·김영민이 아미타상조상기의 미해독 두 자를 마저 판독하였으며, 마멸되어서 읽을 수 없다고 기존에 생각한 아미타상조상기의 세 칸은 애초에 글자가 새겨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³⁷

필자는 최근 두 차례의 실사를 통하여 신소연·김영민이 새로 판독해낸 두 글자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까지 판독 불능으로 남아있던 미륵상조상기의 두 자(제19행 제10자와 제20행 제6행)도 판독하였다. 먼저 제19행 제10자는 자형이 마모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의 조상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芥’자임이 분명하다(도 6, 도 6-1). 이는 바로 앞의 ‘城’자와 합쳐서 단어를 이루는 바, 『大智度論』 등의 불교 문헌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劫의 풀이에서 비유로서 종종 등장한다. 그리고 제20행 제6자는 이끼에 글자의 일부가 덮였는데, 다행히 좌상의 ‘臼’와 오른쪽의 ‘𣎵(수)’의 일부가 확인된다(도 7, 도 7-1). 앞 글자가 ‘不’임을 고려하면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글자가 와야 하므로, 이 글자는 ‘𣎵’자로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면 실사를 통하여 字形을 확인하고 문맥을 고려하여 판독 불능으로 남은 최후의 두 글자를 판독함으로써, 두 조상기 전문 판독은 일단락되었다(부록 1, 2 판독문 참조).

36 이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의 강삼혜 학예연구사와 임기현·김규훈 학예연구원이 2020년 8월 10일과 10월 6일 및 11월 30일의 세 차례에 걸쳐 실측을 도와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37 신소연·김영민, 앞의 논문(2013) 참조.



도 6. 쪼자 비면



도 6-1. 쪼자 판독



도 7. 겹자 비면



도 7-1. 겹자 판독

2. 문장 구조와 내용

마지막으로 판독된 글자는 단 네 자에 불과하지만, 이 글자들로 인해 조상기의 문장 구조와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또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에 보이듯이 두 조상기는 각각 순 한문식(A) 한문과 이두식(B) 한문이 결합되어 있다. 순 한문식 문장은 둘 다 유려한 사륙변려문으로서, 별도의 제목 없이, 序(1, Ⅱ), 造像主 또는 發願者(2, Ⅲ), 발원문(3, Ⅳ), 조상 사실(4, 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두식 문장은 追記에 해당하는데, 추기는 다시 돌아가신 부모의 사망 및 장법 관련 기사(5-①, Ⅴ)와 造像主 金志全의 사망 기사(5-②)로 나누어진다.

표 2. 아미타불상조상기와 미륵보살상조상기의 구조

아미타불상조상기 (389자)			미륵보살상조상기 (381자)				
A	1	若夫至道者, 不生不滅, 猶表跡於周宵, 能仁者, 若去若來, 尚流形於漢夢, 濫觴肇自西域, 傳燈及至東土, 遂乃佛日之影, 奄日域以照臨, 貝葉之文, 越貝川而啓發, 龍宮錯峙, 鴈塔駢羅, 舍衛之境在斯, 極樂之邦密爾,	I	①	開元七年 己未, 二月 十五日,		
	2	有重阿食金志全, 誕靈河岳, 降德星辰, 性叶雲霞, 情友山水, 蘊賢材而命代, 懷智略以佐時, 朝鳳闕而銜綸, 則受尚舍奉御, 遼雞林而曳綬, 則任執事侍郎, 年六十七, 懸車致仕, 避世閑居, 倅四皓之高尚, 辭榮養性, 同兩疏之見機, 仰慕無著眞宗, 時時讀瑜伽之論, 兼愛莊周玄道, 日日覽逍遙之篇, 以爲報德慈親, 莫如十號之力, 酬恩聖主, 無過三寶之因,	II	②	重阿食金志誠, 奉爲 亡考仁章一吉食·亡妣觀肖里,		
				③	敬造甘山寺一所·石阿彌陀像一軀·石彌勒像一軀,		
					蓋聞, 至道玄微, 不生不滅, 能仁眞寂, 無去無來, 所以顯法應之三身, 隨機垂濟, 表天師之十號, 有願咸成,		
	3	① 故奉爲 國主大王, 伊食愷元公, 亡考, 亡妣, 亡弟小舍梁誠·沙門玄度, 亡妻古路里, 亡妹古寶里, 又爲 妻阿好里等, ② 捨其甘山莊田, 建此伽藍, 仍造石阿彌陀像一軀, ③ 伏願, 託此微因, 超昇彼岸, 四生六道, 並證菩提,	III		弟子志誠, 生於聖世, 歷任榮班, 無智略以匡時, 僅免罹於刑憲, 性諧山水, 慕莊老之逍遙, 志重眞宗, 希無著之玄寂, 年六十有七, 致王事於清朝, 遂歸田於閑野, 披閱五千言之道德, 弃名位而入玄, 窮研十七地之法門, 壞色空而俱滅, 尋復降旌命於草廬, 典邇都之劇務, 雖在官而染俗, 塵外之心無捨, 罄志誠之資業, 建甘山之伽藍,		
	4	開元七年, 歲在己未, 二月十五日, 奈麻聽撰, 奉教 沙門釋京融, 大舍金驟源,		IV	①	伏願, 以此微誠, 上資國主大王, 履千年之遐壽, 延萬福之鴻休, 愷元伊食公, 出有漏之囂埃, 證無生之妙果, 弟良誠小舍·玄度師, 姉古巴里, 前妻古老里, 後妻阿好里, 兼庶兄 及漢一吉食·一幢薩食·聰敬大舍, 妹首盼寶里, 及无邊法界 一切衆生,	
					②	同出六塵, 縱登十號, 縱使城芥有盡, 此願无穷, 劫石已消 尊容不毀, 无求不果, 有願咸成, 如有順此心願者, 庶同營其善因也,	
	B	5	①	V	亡妣官肖里夫人, 年六十六, 古人成之, 東海欣支邊散之,		
②							

하나의 佛事인데도 두 문장은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아미타상조상기가 3인칭 시점에서 작성되었고 조상주에 대한 서술이 공적인 반면, 미륵보살상조상기는 1인칭 시점에 가깝고 조상주에 대한 서술 또한 사적이다. 또 문장의 순서를 보면, 아미타상조상기는 서(1)+조상주(2)+발원문(3)+조상 사실 및 서자(4)의 순서인데 비해, 미륵상조상기는 조상 사실 및 조상 사실(Ⅰ)+서(Ⅱ)+조상주(Ⅲ)+발원문(Ⅳ)으로 전개된다. 이처럼 미륵상조상기가 조상을 포함한 佛事의 요점을 두괄식으로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명과 관명의 표기도 달라서, 미륵상조상기가 순 한문식 문장과 추기 모두 인명+관등명으로 일관한 반면, 아미타상조상기는 순 한문식 문장에서는 관등명+인명 순으로, 추기에서는 반대로 인명+관등명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 예시하였듯이 동일 인물의 이름이 두 조상기에서, 심지어 미륵상조상기는 순 한문식 문장과 이두식 추기에서 다르게 표기되었다. 또한 몇몇 인물은 미타상조상기의 亡弟와 亡妻와 亡妹가 미륵상조상기에서는 모두 ‘亡’자를 표기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미타상조상기: 金志全, 亡弟梁誠, 亡妻古路里, 妻阿好里, 亡妹古寶里

미륵상조상기: 金志誠, 良誠, 前妻古老里, 後妻阿好里, 姊古巴里
亡妣觀肖里(Ⅰ)와 亡妣官肖里夫人(Ⅴ)

이처럼 동일한 시기의 동일한 佛事임에도 불구하고 원문과 추기로 나누어진다는 것, 서술의 시점과 문장의 순서 및 인명/관명의 표기가 다른 점은, 두 조상기가 복수의 인물에 의해서 시기를 달리하며 작성되었음을 암시한다.

3. 찬자와 서자

감산사 조상기는 신라 불교 금석문 가운데 찬자가 명기된 가장 이른 시기의 예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표 2>의 A-4를 “開元七年歲在己未二月十五日奈麻聰撰奉教沙門釋京融大舍金驪源□□□”라고 판독하였다. 일찍이 카쓰라기가 말미의 세 칸(□□□)은 앞의 ‘撰奉教’에 대응하는 ‘書奉教’의 세 글자가 새겨졌으나 마멸되어 읽을 수 없다고 추정하였는데,³⁸ 최근까지 이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을 근거로 “奈麻(薛)聰이 왕명을 받들어 찬술하고, 沙門 釋京融과 大舍 金驪源이 왕명을 받들어 쓰다.”로 풀이하였다. 심지어 ‘書奉教’를 전제로 ‘撰奉教’를 ‘奉教撰’의 어순을 신라식으로 바꾼, 이두식 표현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³⁹ 그러나 여기를 제외하면 두 조상기의 순 한문식 문장에

38 葛城末治, 앞의 책(1935), pp.208-209.

39 葛城末治, 위의 책(1935); 南豐鉉, 『新羅時代 吏讀文의 解讀』, 『書誌學報』9(1993); 『吏讀研究』(서울: 태학사, 2000), p.369.

서 이두식 표현은 전무하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정밀 조사에서 마지막 세 칸은 애초부터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공간이었음이 확인되었다.⁴⁰

애초부터 글자가 없었으므로 A-4는 다시 해석해야 한다. 문제는 세 글자가 없다는 것은, 沙門釋京融과 大舍金驟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술어가 주어 다음에 위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술어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주어 다음이 아니라 앞에 와야 한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 술어는 ‘撰奉敎’의 세 글자뿐이므로, ‘撰奉敎’를 이두식 표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撰’과 ‘奉敎’를 떼어서 읽어야 한다. 즉 위 구절은 ‘奈麻聰撰 奉敎 沙門釋京融·大舍金驟源’(나마 총이 찬하다. 왕명을 받든 이는 사문 석경융과 대사 김취원이다)로 해석된다.

어떤 식으로 읽든 아미타상조상기는 ‘奈麻聰’ 즉 元曉의 아들 薛聰의 찬술로 추정된다.⁴¹ 엄밀히 말하자면, 두 조상기 중에서 아미타상조상기의 순 한문식 문장만 설총이 찬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문장이 3인칭 시점에서 씌어진 공적인 글임은 이를 반영한다. 반면 ‘弟子志誠’의 용례라든가 겸사의 표현 방식 등을 근거로 미륵상조상기의 찬자는 金志誠 자신일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⁴² 다만 다음에 검토하듯이 후기(5-②)는 金志全 사후 그의 직계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감산사 조상기는 ‘奈麻聰’과 김지성, 그리고 김지성의 직계 자손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 최소한 세 명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말해준다.

‘奉敎’는 김지성의 감산사 창건과 두 석상의 造像이 사적인 佛事라 할지라도 왕명, 즉 국왕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王命으로 진행된 佛事에서 승려와 俗官이 짝을 지어서 奉敎의 사명을 수행한 실례는 「皇福寺金銅舍利函記」(706년) 이래 신라 말까지 금석문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719년 2월 造像과 동시에 조상기도 새겨졌을 것이라 간주되었다. 그럴 경우 아미타상조상기에서 720년 4월 金志全의 사망 기사는 追記이므로 追刻이어야 한다. 아미타상조상기는 해서와 행서가 혼용된 반면, 미륵상조상기는 해서 위주로 씌어졌다. 또한 미륵상조상기는 중앙 하반부에 井間이 남아있지만, 아미타상조상기는 정간의 흔적을 일절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두 조상기의 서자 내지 각자가 달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두 조상기의 글씨는 전체적으로 王羲之風을 보여준다. 그 무렵 왕희지 글씨를 대표하는 「集字聖敎序」(672년)는 최초의 集字碑로서, 집자비의 특성상 글자 크기와 서체가 일정치 않다. 어쩌면 두 조상기는 720년 4월 金志誠의 사망 이후에 「集字聖敎序」를 집자하여 동시에 새겼을 가능성도 있다. 서자와 관련해서는 추후 集字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밀한 서체 조사가 필요하다.

40 신소연·김영민, 앞의 논문(2013), p.78.

41 葛城末治, 앞의 책(1935), pp.209-210 附記 1 참조.

42 김영미, 앞의 논문(1988), p.374.

4. 추기(5-②)의 작성자

아미타상조상기 중에서 추기(5-②)는 金志奎의 사망 기사인데, 기왕에는 제20행 제21자와 제21행 제19자의 판독이 불확실하여서,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채 남아있었다. 그런데 최근 두 자가 각각 ‘六’과 ‘賜’임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두 글자를 중심으로 기존에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되었던 구절을 새롭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敬生已前; ‘敬’에는 ‘更(다시, 재차)’의 뜻이 있다.⁴³ 그러므로 ‘更生 이전’ 즉 ‘다시 태어나기 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불교적 윤회관을 반영한 표현이다.

歲六十九; ‘六’자는 왕희지의 행서체 글씨와 흡사하다. 그런데 문명대가 문제제기 하였듯이, 두 조상기에서 ‘나이’에 해당하는 글자는 네 번 一亡考 1, 亡妣 1, 김지성/지전 2— 모두 ‘年’자를 썼지, ‘歲’자를 쓴 용례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⁴⁴ 달리 말하자면 여기만 이례적으로 ‘歲’자를 쓴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 즉 ‘年’과 다른 ‘歲’자만의 용법이 있어야 하는데, 뒤에 나오는 ‘賜’와 문법적으로 조응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나이[年]’의 경어인 ‘연세[歲]’가 아닌가 한다.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이 구절은 ‘연세 예순 아홉’이라 해석할 수 있다.

長逝爲賜之; 여기서 ‘爲賜之’가 이두문임은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賜’자는 고대 국어에서 주체높임법 선언말 어미인 ‘-시’의 이두자이다.⁴⁵ 따라서 이 구절은 ‘길이 가셨다’, 즉 ‘돌아가셨다’로 풀이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5-②는 이렇게 해석된다. “김지전 중아찬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이 선업을 지었으며, 연세 예순 아홉 되던 경신년(720) 4월 22일에 돌아가셨다.” 흥미롭게도 이 문장은 전체 조상기 가운데 유일하게 경어체로 작성된 이두식 한문이다. 이는 이 문장을 추기한 사람이 김지전과 특수 관계, 아마 그의 직계자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IV. 造像主, 佛事, 그리고 發願

1. 조상주

조상주의 이름이 두 조상기에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기된 점은 일찍부터 지적되어왔다.

43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卷6(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5), p.348.

44 문명대, 앞의 논문(1974a), pp.104-105.

45 고·중세 이두문에서 ‘賜[-시]’ 및 후술할 ‘在[거]’의 쓰임새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황선엽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重阿飡金志全’, ‘金志全重阿飡’(아미타상조상기)

‘重阿飡金志誠’, ‘弟子志誠’(미륵상조상기)

이름 중에서 마지막 자의 초성 ‘스’와 ‘스’ 및 종성 ‘ㄴ’과 ‘ㅇ’은 당시 발음상 혼용되었다. 단 아미타상조상기는 薛聰이 찬술한 조상기이므로 신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표기는 ‘金志全’일 것이다. 반면 미륵상조상기는 조상주 자신의 찬술로 추정되는데, 『冊府元龜』에서 ‘金志誠’이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그는 당나라 使行 때의 표기를 선호한 듯하다.

김지성에 대하여, 부[仁章]의 관등 一吉飡 및 김지성의 관등 重阿飡과 관직 執事侍郎을 근거로, 신분을 六頭品으로 간주하기도 하나, 성이 왕실과 같은 金이라는 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 특히 집사시랑은 中代 국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사부의 차관직이라는 점에서, 김지성이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고위 관료였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경력은 705년의 당나라 사행이었다. 아미타상조상기의 ‘朝鳳闕而銜綸, 則授尙舍奉御’가 그것인 바, 이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冊府元龜』의 中宗 神龍 원년(705) 3월조에 보이는 “新羅王金志誠, 遣使來朝”를 주목한 바 있다.⁴⁶ 그리고 ‘尙舍奉御’가 사행 갔을 때 당으로부터 받은 관직이라는 사실은 근래 권덕영에 의해 밝혀졌는데, 나아가 그는 706년 5월 皇福寺塔에 봉안한 『無垢淨光陀羅尼經』을 김지성이 당에서 가져온 것이라 추정하였다.⁴⁷

아미타상조상기의 ‘遯雞林而曳綬, 則任執事侍郎’는 귀국 직후 김지성이 당나라 사행의 공적을 인정받아 執事侍郎에 임용되었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덕왕대의 정국 동향을 배경으로 김지성의 입지를 추측하기도 한다.⁴⁸

年六十七, 懸車致仕. 避世閑居, 侔四皓之高尙, 辭榮養性, 同兩疏之見機.(아미타상조상기, 2)

年六十有七, 致王事於清朝, 遂歸田於閑野.(미륵상조상기, Ⅲ)

위의 아미타상조상기에서는 김지성이 67세에 致仕한 것과 관련하여 ‘兩疏之見機’를 언급하였는데, 兩疏는 漢 宣帝 때의 명신 疏廣과 그의 조카 疏受로서 둘 다 사태의 기미를 미리 알아채고 관직에서 같이 물러났다고 한다.⁴⁹ 이 구절은 김지성이 나이가 많아서 致仕했다기보다는 정세 악화를 예견한 보신책임을 암시한다.⁵⁰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관료지식인으로서의 김지성의 지적 소양이다.

46 주 6) 참조.

47 권덕영, 앞의 책(1997), pp.137-139, p.283.

48 김영미, 앞의 논문(1988); 최완수, 앞의 책(2007), pp.231-353.

49 『漢書』 권71, 列傳41 疏廣.

50 최완수, 앞의 책(2007), pp.236-341.

仰慕無著眞宗，時時讀瑜伽之論，兼愛莊周玄道，日日覽逍遙之篇。”(아미타상조상기, 2)

披閱五千言之道德，弃名位而入玄，窮研十七地之法門，壞色空而俱滅。”(미륵상조상기, Ⅲ)

이 구절을 근거로 기존에는 김지성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瑜伽師地論』과 『道德經』을 愛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왔다. 두 문헌이 각각 대변하는 불교와 도교는 현세적인 유교에 대하여 출세간의 가르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당에서는 불교와 도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다. 더욱이 『유가론』이 인도 원전에 최대한 충실하게 직역한 것이라면, 『도덕경』은 지극히 중국적인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문헌이다. 이처럼 이질적인 두 문헌의 조합은 그 당시 관료지식인의 지적 분위기가 이례적이었음을 역설한다.

『유가론』 100권은 玄奘 역경 활동의 전반부를 대표하는 업적으로서 그 번역 직후에 당 태종과 고종이 친히 서문을 지었는데, 그 서문이 12일 만에 천하에 퍼졌다고 한다. 한편 태종은 황실과 성이 같다는 이유에서 老子를 祖宗으로 선포하고 도교를 존숭하는 先道後佛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를 이어 고종은 노자를 太上玄元皇帝로 추존하는 한편⁵¹ 則天武后의 건의를 받아들여 王公百僚들로 하여금 『도덕경』을 습득케 하였다.⁵² 즉 『유가론』과 『도덕경』이 사상적으로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 태종과 고종이 각별히 예우한 문헌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황족과 관료들 또한 두 문헌에 대한 지적 소양이 요청되었으며, 그러한 분위기는 나당 간의 교류를 통하여 신라의 관료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말하자면 김지성에게서 보이는 두 문헌의 이례적인 조합은 7세기 중후반~8세기 전반의 관료지식인들의 지적 소양을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 기왕에는 김지성이 은퇴한 처지에서 감산사 불사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하여왔다. 그런데 미륵상조상기는,

尋復降旌命於草廬，典邇都之劇務，雖在官而染俗，塵外之心無捨。(Ⅲ)

라고 하여, 김지성이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소환되어 도성의 번잡한 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佛事に 착수하였음을 보여준다. 위 인용문은 조상기에서 살아있는 ‘國主大王[聖德王]’과 金愷元 伊瀆을 특별히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 造像과 發願

김지성의 지적 소양은 불교[유가론]와 도교[도덕경]를 겸비하였다. 그런데 감산사 불사를 하게 된 동기를 아미타불상조상기에서는,

51 『舊唐書』 권20, 本紀5, 高宗 乾封元年, “二月 己未, 次亳州, 幸老君廟, 追號曰, ‘太上玄元皇帝’, 創造祠堂.”

52 『舊唐書』 권24, 志4 禮儀4, 釋奠, “儀鳳三年 五月, 詔, ‘自今已後, 道德經 並為上經, 貢舉人 皆須兼通.’”

以爲報德慈親，莫如十號之力，酬恩聖主，無過三寶之因(2)

라고 하여, 부모님의 덕에 보답하고 임금님의 은혜를 갚는 데 있어서 불교[十號之力과 三寶之因] 만 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물론 『유가론』에서 보살이 여래를 공양하는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 열반 후에 여래를 위하여 形像을 조립하고 공양하는 것을 들고 그 공덕의 결과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복덕의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⁵³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塔, 龕室, 臺와 같은 건축물을 가리킬 뿐, 佛像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김지성 造像의 사상적 배경은 그가 애독한 『도덕경』이나 『유가론』이 아닌 다른 문헌에서 찾아야 한다.

造像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한 孝行이 되려면, 조상이 功德行이어야 하며, 그 공덕이 타인에게 移轉[transference] 가능해야 한다. 한역 경전 가운데 造像을 佛說의 권위로 정당화하는 경전으로는, 『大般涅槃經』(曇無讖 역, 410년대) 권21,⁵⁴ 『大般涅槃經』(慧嚴 역, 5세기 전반) 권19,⁵⁵ 『文殊師利問經』(僧伽婆羅 역, 6세기 초) 下,⁵⁶ 『佛說大乘造像功德經』(提雲般若 역, 7세기 말) 下,⁵⁷ 『大寶積經』(菩提流志 역, 712) 권89 摩訶迦葉會 23-2⁵⁸ 등이 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에서 수습된 금석문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부모를 위한 조상이 이들 지역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⁵⁹

이러한 경전적 근거와 역사적 조상을 배경으로 김지성은 다음과 같이 創寺와 造像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捨其甘山莊田，建此伽藍，仍造石阿彌陀像一軀(아미타상조상기, 3-②)

奉爲亡考仁章一吉滄·亡妣觀肖里，敬造甘山寺一所·石阿彌陀像一軀·石彌勒像一軀(미륵상조상기, I)

미륵상조상기는 첫 문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佛事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두 조상기 모두 佛事의 시점으로 719년 2월 15일(4, I-①)을 특정하였다.

造像에 대하여 미륵상조상기는 첫머리에서,

53 玄奘 譯(648), 『瑜伽師地論』 권44 (T.30, 533c).

54 T.12, 491b.

55 T.12, 734a-b.

56 T.14, 507a.

57 T.16, 793b.

58 T.11, 512b-c.

59 인도와 중국의 사례 연구로는 각각 Gregory Schopen, "Filial Piety and the Monk in the Practice of Indian Buddhism: A Question of 'Sinicization' Viewed from the Other Side," *T'oung Pao*, Vol. LX X, (1984), pp.110-126 및 水野清一·長廣敏雄, 『龍門石窟の研究』(東方文化研究所 研究報告 第16冊, 東京: 座右寶刊行會, 1941)를 참조하기 바람.

奉爲 亡考仁章一吉滄·亡妣觀肖里, 敬造甘山寺一所·石阿彌陀像一軀·石彌勒像一軀.”(I-②, ③)

라고 하여, 스스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甘山寺를 창건하고 石阿彌陀像 1구와 石彌勒像 1구를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미타상조상기의 말미에는 亡考의 사망 및 장법이(5-①), 미륵상조상기의 말미에는 亡妣의 사망 및 장법이(V) 각각 추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문명대가 아미타불상의 ‘당당한 偉丈夫的 체구’와 미륵보살상의 ‘여성미’를 주목한 바 있으며,⁶⁰ 김영미는 여기서 나아가 아미타상은 亡考를 위하여 미륵상은 亡妣를 위하여 각각 조성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다.⁶¹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인 바,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하고자 한다.

두 像의 성격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할 문장은 아미타상조상기 추기의 “後代追愛人者 此善助在哉”(5-①)이다. 뒷부분 이두문의 해석은 학자마다 이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나오는 이두 ‘-在[겨]’를 과거 완료 내지 현재 진행으로 해석할 경우, 이 善業은 김지성이 719년에 이미 완수하였으므로, 주어[후대의 추모인]와 목적어[이 선업]의 시제가 불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이두 ‘-在哉(겨져)’는 소망 표현(-하기를 바란다)으로도 해석된다.⁶² 이 견해에 따르면 위 구절은 ‘후대에 추모하는 사람, 이 선업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김지성은 후손들이 추모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상을 조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판독한 두 글자 ‘芥’와 ‘毀’를 문맥 속에서 다시 검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縱使城芥有盡, 此願无窮, 劫石已消, 尊容不毀.(미륵상조상기, IV-②)

‘城芥’와 ‘劫石’은 『大智度論』 등의 불교 문헌에서 ‘劫’에 대한 석존의 설법에 비유로서 종종 등장한다. 즉 사망 4천 리나 되는 성을 가득 채운 겨자를 백 년에 하나씩 꺼내서 성 안의 겨자가 다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사망 4천 리나 되는 바위에 백 년에 한 번 올 때마다 부드러운 옷자락이 스치면서 바위가 다 닳는 데 걸리는 시간을 劫이라고 한다.⁶³ 따라서 위 구절은 자신의 발원이 영원히 무궁하기를, 또 그가 조성한 두 석상의 尊容이 영원토록 훼손되지 말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특별한 뜻을 담아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각각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의 존용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도 8, 9).

이제 김지성의 특별한 뜻과 관련하여 頂穴을 주목하고자 한다. 감산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

60 문명대, 앞의 논문(1974a), pp.78-82.

61 김영미, 앞의 논문(1988), p.373.

62 李賢熙, 「-아저와 -良結」, 『素谷南豐鉉先生 回甲紀念論叢』(서울: 太學社, 1995), pp.411-428 참조.

63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권5 (T.25, 100c), “劫義佛譬喻說, 四千里石山, 有長壽人, 百歲過持細軟衣 一來拂拭, 令是大石山盡, 劫故未盡. 四千里大城, 滿中芥子, 不概令平, 有長壽人, 百歲過一來 取一芥子去, 芥子盡, 劫故不盡.”



도 8. 아미타불상 존용



도 9. 미륵보살상 존용



도 8-1. 아미타불상 정혈, 지름 3.0cm, 깊이 2.0cm



도 9-1. 미륵보살상 정혈, 지름 2.0cm, 깊이 1.3cm

의 정혈은 1999년에 발견되었으며, 이듬해 필자가 처음 소개한 바 있다.⁶⁴ 상의 정수리에 뚫린 구멍을 頂穴이라고 하는데, 감산사 아미타불상의 정혈은 지름 3.0cm, 깊이 2.0cm이며, 미륵보살상의 정혈은 지름 2.0cm, 깊이 1.3cm이다(도 8-1, 9-1)〈표 1〉. 정혈은 한국 학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간다라 불상에까지 소급될 정도로 연원은 깊고 의미는 심장하다. 이주형의 뛰어난 연구에 따르면, 간다라 불상에서 우슈니사[肉髻] 위에 정혈을 가진 불상들은 생생한 實在感을 보여주는 바, 대체로 정혈 안에

64 南東信, 「북한산 僧伽大師像과 僧伽信仰」, 『서울학연구』14(2000), p.18 및 도 5. 감산사 두 석상의 頂穴은 독일 순회 전시회(1999년 11월~2000년 1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재홍 학예연구사(현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부터 정혈의 발견 사실과 사진 자료를 제공받아서, 위 논문에서 처음 소개하게 되었다. 또한 畏友 이주형 교수(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도움을 받아 정혈에 관한 불교미술사 분야의 선행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뒤늦게나마 두 분께 감사드린다.

는 사리를 봉안하였으리라 추정된다.⁶⁵ 이러한 추정은 감산사 두 석상의 정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가 상투적인 수사가 아니라, 참배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연상되기를 바라면서 김지성이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의 尊容과 정형을 조성하였음을 시사한다.⁶⁶

요컨대, 김지성의 부모는 돌아가신 후 모두 화장해서 동해 바닷가에 산골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자손들이 추모하려 해도 그 마음을 기댈 물질적 標識가 없었다. 이에 김지성은 후대에 추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마음의 표지로 삼을 수 있도록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을 가문의 願堂인 감산사에 조성한 것이다. 그런데 불·보살상을 조성하되, 두 상을 親見하는 후손들로 하여금 仁章 부부의 모습을 상기할 수 있게 하고자, 인장 부부를 투영하여 尊容을 사실적으로 조각하고, 아울러 정형에 부모의 실재감을 불러올 상징물을 안치하였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조상기에 보이는 發願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조상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원하였다.

伏願, 託此微因, 超昇彼岸, 四生六道, 並證菩提.(아미타상조상기, 3-③)

國主大王, 履千年之遐壽, 延萬福之鴻休, 愷元伊飡公, 出有漏之羈埃, 證無生之妙果,(IV-①),
同出六塵, 咸登十號.(IV-②, 이상 미륵상조상기)

여기서 국왕의 壽福과, 이찬 개원 및 가족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발원하고 있을 뿐, 아미타불이나 미륵보살과 관련된 極樂往生이라든가 兜率天 上生을 希求하는 관념은 일절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조상기에서 극락왕생 또는 도솔천 상생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지성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을 조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아미타불과 미륵보살의 결합은 이미 6세기 후반의 造像銘에서 확인되지만, 조상기에서 조성된 상과 그 배경이 되는 관념이 반드시 언급되지는 않는다.⁶⁷

특히 감산사 미륵보살상은 冠에 化佛이 새겨져 있으며 立像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圖像의 미륵보살상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사에서 그 유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⁶⁸ 조상기에서 ‘미륵보살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미술사학자들은 도상적 특징에 근거하여 관음보살상이라고 자연스럽게 간

65 이주형, 「간다라 佛像과 舍利 奉安」, 『中央아시아研究』9(2004), pp.132-146.

66 심포지움 지정토론자 한정호 교수는 佛·菩薩像의 정형에 과연 부모의 유체를 안치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아쉽게도 두 상의 조상기는 정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706년 신라 왕실은 황복사 삼층석탑에 사리 네 구를 안치하면서 그 사실을 舍利記에서 특기하였다. 물론 조상기에서 佛舍利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사리를 봉안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필자는 불사리의 봉안 여부는 판단을 보류하고 부모의 상징물을 안치하였을 가능성만 제기해 둔다.

67 久野美樹, 「造像背景としての生天・託生西方願望—中國南北朝期を中心として—」, 『佛教藝術』187(1989), pp.25-59 참조.

68 이주형, 앞의 논문(2010), pp.10-11.

주하였을 것이라고 한다.⁶⁹ 반대로 상을 보지 않고 조상기만 읽은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륵보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지성은 도상적으로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면서 그 명칭을 왜 미륵보살상이라고 하였는가? 반대로 미륵보살상을 조성하면서 왜 관음보살상의 도상을 취하였는가?

미륵신앙은 죽은 자를 위한 來世 신앙이며, 관음신앙은 산 자를 위한 現世 신앙이다. 김지성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상을 조성하기 때문에 내세에서의 도솔천 상생과 관련된 미륵보살상을 의도하되, 그 상에 慈母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하여 慈悲의 화신인 관음보살상의 도상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미륵보살상이나 관음보살상이나 하는 도상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근저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심성이 놓여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甘山寺의 阿彌陀佛像과 彌勒菩薩像의 光背에 각각 새겨진 造像記를 재검토함으로써, 통일신라기 불상을 대표하는 걸작이자 기준작인 두 상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 장에서는 ‘근대적 발견’ 이래 지난 100년간의 연구 성과를 네 시기로 나누어 검토한 다음, 필자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II 장에서는 기왕의 미륵보살상>아미타불상의 位次를 비판하고 조상기를 재검토한 후 두 상의 배치와 외관에 근거하여 아미타불상>미륵보살상의 위차가 옳음을 논증하였다. III 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판독 불능으로 남았던 두 글자를 처음으로 판독하고, 이를 포함하여 기존에 의미가 불분명하였던 몇몇 구절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아울러 아미타불상조상기와 미륵보살상조상기의 문장 구조를 비교하고 조상기의 찬자와 서자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書體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끝으로 IV 장에서는 조상기의 내용을 造像主와 造像 및 發願으로 나누어 재검토하였다. 특히 필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라는 조상기의 구절이 상투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金志誠이 돌아가신 부모를 모두 화장해서 동해 바닷가에 산골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추모하려 해도 그 마음을 의지할 물질적 標識가 없었다. 그래서 만년의 김지성은 甘山田莊을 회사하여 절로 삼고, 여기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돌로 각각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을 조성하되, 부모님의 실제 모습을 투영하여 像의 尊容을 사실적으로 조각하고 그 頂穴에 부모의 상징물을 안치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두 상 가운데 특히 미륵보살상은 冠에 化佛이 있는 立像인데, 미술사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圖像의 미륵보살상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도상적 특징만

69 최완수, 앞의 책(2007), pp.245-246; 이주형, 앞의 논문(2010), p.12.

본다면 십중팔구 관음보살상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반대로 조상기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륵보살상이다. 김지성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來世에는 도솔천에 上生하기를 기원하였기에 도솔천을 주재하는 미륵보살상을 만들기로 하되, 그 상에 慈母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하여 慈悲의 화신인 관음보살상의 도상을 취했던 것이다. 이것은 아미타불상도 마찬가지여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회구하여 아미타불상을 조성하되 모든 불교도의 慈父인 석가여래상의 도상을 차용하였다고 유추된다. 후대의 추모자들이 정면에서 상[Image]을 친견하고 뒤로 돌아가서 조상기[Text]를 읽었다면, 그들은 김지성의 부모님을 향한 추모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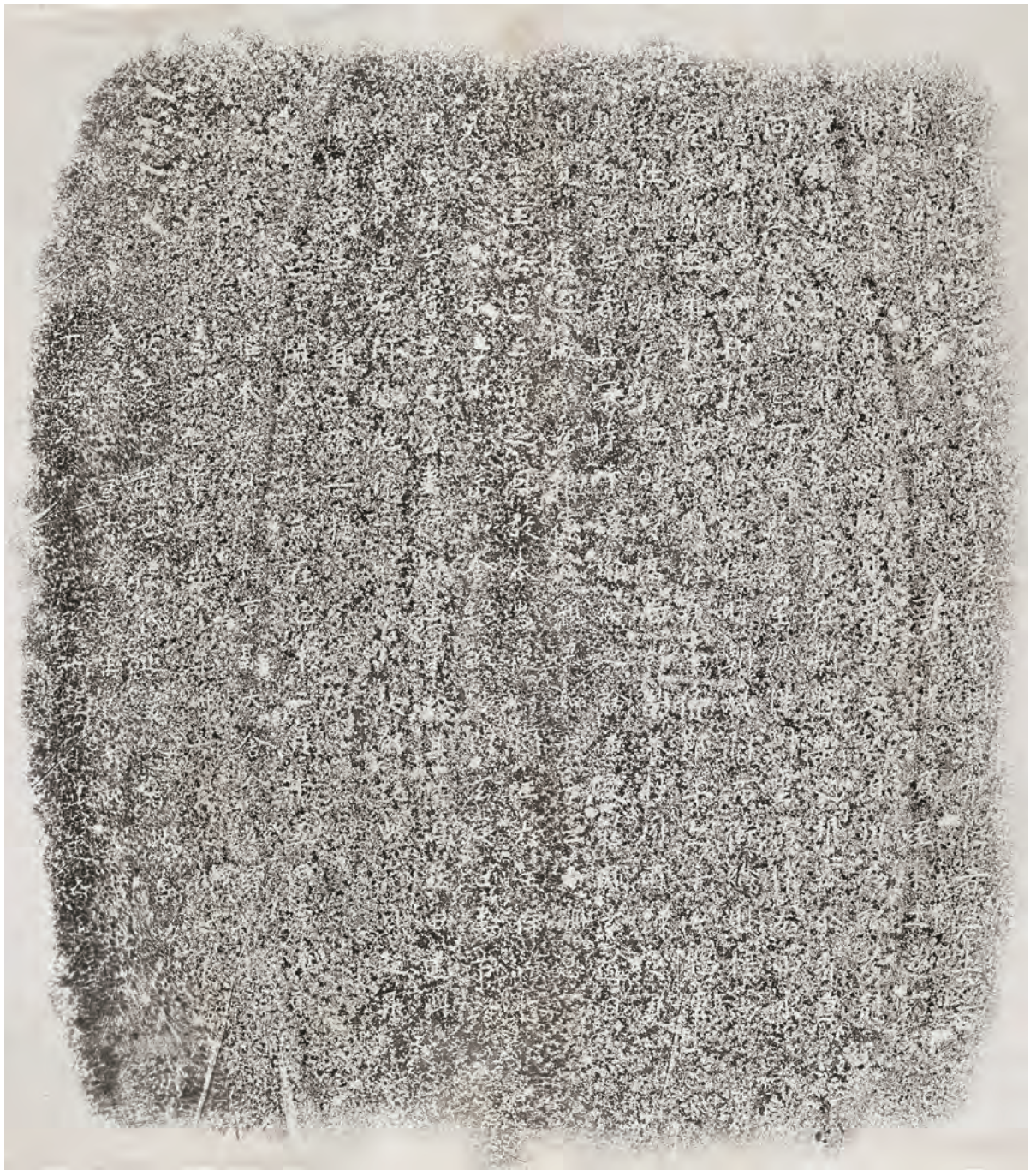
원고투고일 2020.9.20. | 심사개시일 2020.10.5. | 게재 확정일 2020.11.18. |

부록 1. 甘山寺 阿彌陀佛像 造像記 판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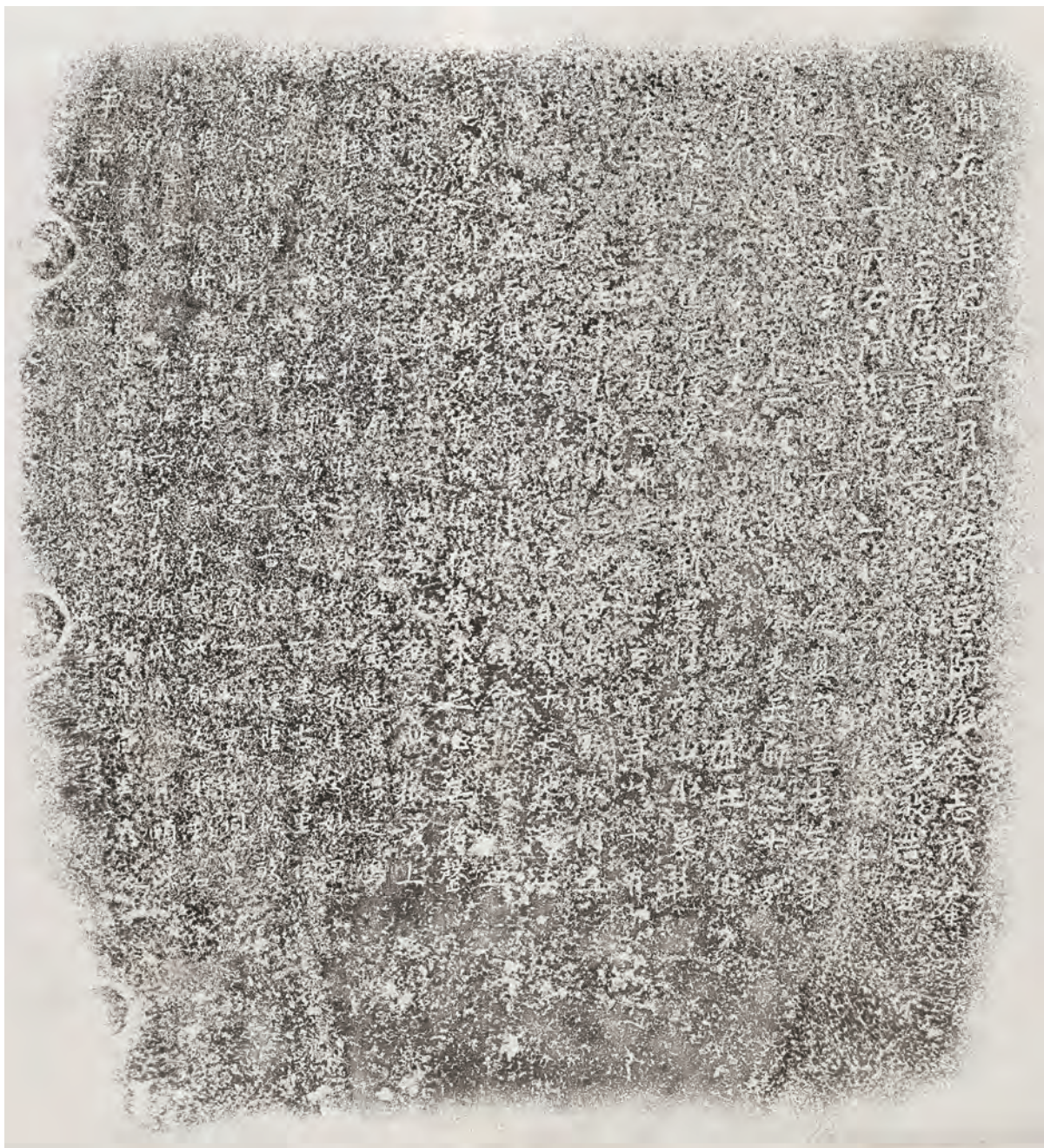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행 자
十九 庚申 年四 月廿 二日 長逝 爲賜 之	金志 全重 阿漚 敬生 已前 此善 業造 歲六	欣支 邊散 也後 代追 愛人 者此 善助 在哉	亡考 仁章 一吉 漚年 卅七 古人 成之 東海	撰奉 教沙 門釋 京融 大舍 金驪 源	開元 七年 歲在 己未 二月 十五 日奈 麻聰	彼岸 四生 六道 並證 菩提	伽藍 仍造 石阿 彌陀 像一 軀	里亡 妹古 寶里 又爲 妻阿 好里 等捨 其甘 山莊 田建 此	元公 亡考 亡妣 亡弟 小舍 梁誠 沙門 玄度 亡妻 古路	聖主 無過 三寶 之因 故奉 爲國 主大 王伊 漚愷	日覽 逍遙 之篇 以爲 報德 慈親 莫如 十號 之力 酬恩	機仰 慕無 著眞 宗時 時讀 瑜伽 之論 兼愛 莊周 玄道 日	致仕 避世 閑居 侔四 皓之 高尚 辭榮 養性 同兩 疏之 見	舍奉 御遼 雞林 而曳 綬則 任執 事侍 郎年 六十 七懸 車	蘊賢 材而 命代 懷智 略以 佐時 朝鳳 闕而 銜綸 則授 尙	阿漚 金志 全誕 靈河 岳降 德星 辰性 叶雲 霞情 友山 水	宮錯 峙鴈 塔駢 羅舍 衛之 境在 斯極 樂之 邦密 爾有 重	佛日 之影 奄日 域以 照臨 貝葉 之文 越俱 川而 啓發 龍	來尙 流形 於漢 夢濫 觴肇 自西 域傳 燈及 至東 土遂 乃	若夫 至道 者不 生不 滅猶 表跡 於周 宵能 仁者 若去 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⑳
																					㉑

부록 2. 甘山寺 彌勒菩薩像 造像記 판독문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행 자
年	心	已	六	大	妻	弟	然	資	志	邇	門	千	七	老	無	有	所	蓋	山	爲	開	①
六	願	消	塵	舍	阿	良	愷		誠	都	壤	言	致	之	智	願	以	聞	寺	元	②	
十	者	尊	咸	妹	好	誠	元		之	之	色	之		迨	略	咸	顯	至	一		七	③
六	庶	容	登	首	里	小	伊	國	資	劇	空	道		遙	以	成	法	道	所	亡	年	④
古	同	不	十	盼	兼	舍	浪	主	業	務	而	德	王	志	匡	弟	應	玄	石	考	己	⑤
人	營	毀	號	買	庶	玄	公	大	建	雖	俱	弃	事	重	時	子	之	微	阿	仁	未	⑥
成	其	无	縱	里	兄	度	出	王	甘	在	減	名	於	眞	僅	志	三	不	彌	章	二	⑦
之	善	求	使	及	及	師	有	履	山	官	尋	位	清	宗	免	誠	身	生	陀	一	月	⑧
東	因	不	城	无	漢	姊	漏	千	之	而	復	而	朝	希	羅	生	隨	不	像	吉	十	⑨
海	也	果	芥	邊	一	古	之	年	伽	染	降	入	遂	無	於	於	機	減	一	漚	五	⑩
欣		有	有	法	吉	巴	器	之	藍	俗		玄	歸	著			拯	能	軀	亡	日	⑪
支	亡	願	盡	界	漚	里	埃	遐	伏	塵		窮	田	之	憲		濟	仁	石	妣	重	⑫
邊	妣	咸	此	一	一	前	證	壽	願	外	旌	研	於	玄	性	聖	表	眞	彌	觀	阿	⑬
散	官	成	願	切	懂	妻	无	延	以	之	命	十	閑	寂	諧	世	天	寂	勒	肖	浪	⑭
之	肖	如	无	衆	薩	古	生	萬	此	心	於	七	野	年	山	歷	師	無	像	里	金	⑮
	里	有	窮	生	浪	老	之	福	微	無	草	地	披	六	水	任	之	去	一	敬	志	⑯
	夫	順	劫	同	聰	里	妙	之	誠	捨	廬	之	閱	十	慕	榮	十	無	軀	造	誠	⑰
	人	此	石	出	敬	後	果	鴻	上	罄	典	法	五	有	莊	班	号	來		甘	奉	⑱



부록3. 감산사 아미타불상 광배 영문 탐본, 117.4×118.5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1197)



부록4. 감산사 미륵보살상 광배 영문 탑본, 117.2×133.8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1197)

참고문헌

【1차 문헌】

- 『金石總覽原稿』, 謄寫本, 朝鮮總督府, 1918.
- 『毎日申報』
- 『博物館陳列品圖鑑』2, 3, 京城: 朝鮮總督府, 1920
- 『三國遺事』
-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권1, 2
-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 『朝鮮金石總覽』上
- 『朝鮮彙報』, 京城: 朝鮮總督府, 1915, 3~1920, 6.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

【보고서 · 단행본】

-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서울: 一潮閣, 1997.
-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9.
- 文明大, 『원음과 고전미』, 서울: 예경, 2003.
-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들, 서울: 하늘재, 2003.
- 中央文化財研究院, 『慶州甘山寺法堂址』, 2001.
-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 서울: 대원사, 2007.
- 久野美樹, 『唐代龍門石窟の研究—造形の思想的背景について—』,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11.
- 水野清一・長廣敏雄, 『龍門石窟の研究』, 東方文化研究所 研究報告 第16冊, 東京: 座右實刊行會, 1941.
- 鮎貝房之進, 『朝鮮金石 談(外)』, 서울: 아세아문화사 편집 영인, 1979.
- 中吉功, 『甘山寺石造弥勒·阿弥陀像雜攷』, 『新羅·高麗の佛像』, 東京: 二玄社, 1971.

【논문】

- 강종훈, 「금석문 자료 활용 방식을 통해 본 『삼국유사』 수록 사료의 성격」, 『역사와 담론』60, 2011.
- 金理那, 「新羅甘山寺如來式仏像衣紋との日本式仏像との關係」, 『佛教藝術』110, 1976.
- _____,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教彫刻 樣式」, 『考古美術』154, 1982
- 金英美, 「聖德王代 專制王權에 대한 一考察—甘山寺 彌勒像·阿彌陀像銘文과 관련하여—」, 『梨大史苑』22·23합, 1988.
- _____, 「삼국유사」 「남월산」조와 감산사 미륵·아미타상 조상기의 재검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36, 2015a.
- _____, 「감산사(甘山寺)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 조상(造像)의 경전적 배경」, 『韓國思想史學』50, 2015b.
- 南東信, 「북한산 僧伽大師像과 僧伽信仰」, 『서울학연구』14, 2000.
- _____, 「미술사의 과제와 역사학—불교미술사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268, 2010.
- 南豐鉉, 「新羅時代 吏讀文의 解讀」, 『書誌學報』9, 1993; 『吏讀研究』, 서울대학교: 태학사, 2000.

-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文明大, 「太賢과 茸長寺彫刻」, 『白山學報』 16, 1967.
- _____,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과 그 美術(上)—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62, 1974a.
- _____,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과 그 美術(下)—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63, 1974b.
- 蘇鉉淑, 「甘山寺 彌勒菩薩立像과 阿彌陀如來立像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_____, 「甘山寺 彌勒菩薩立像 研究—着衣 表現을 中心으로—」, 『불교미술사학』 17, 2014a.
- _____, 「統一新羅 佛教彫刻과 唐代 畫風—甘山寺 阿彌陀佛立像과 彌勒菩薩立像을 中心으로—」, 『미술사논단』 38, 2014b.
- 신소연·김영민, 「RTI 촬영을 통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명문 검토」, 『美術資料』 84, 2013.
- 이주형, 「간다라 佛像과 舍利 奉安」, 『中央아시아研究』 9, 2004.
- _____, 「미륵을 만나다: 감산사 미륵보살상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해명」, 『미술사와 시각문화』 9, 2010.
- 李賢熙, 「-아저'와 '-良結」, 『素谷南豐鉉先生 回甲紀念論叢』, 서울: 太學社, 1995.
- 정송이,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도상학적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秦弘燮, 「慶州 甘山寺址·崇福寺址의 調査」, 『考古美術—新羅五岳調査記 其四—』 6, 1965.
- 黃億境, 「甘山寺 石造彌勒菩薩立像과 石造阿彌陀佛立像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Gregory Schopen, "Filial Piety and the Monk in the Practice of Indian Buddhism: A Question of 'Sinicization' Viewed from the Other Side," *T'oung Pao*, Vol. LX X, 1984.
-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京城: 大阪屋書店, 1935.
- 久野美樹, 「造像背景としての生天・託生西方願望—中國南北朝期を中心として—」, 『佛教藝術』 187, 1989.
-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其三)」, 『建築雜誌』 44輯(第533號), 1930.
- 末松保和, 「甘山寺彌勒尊像及び阿彌陀佛火光後記」, 『朝鮮』 211, 1932; 『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954.
- 鮎貝房之進, 『雜攷』 제6輯 上編, 京城: 近澤出版部, 1934.
- 齋藤忠, 「新羅의 葬制から見た 甘山寺跡石造阿彌陀如來像・彌勒菩薩像銘文の一解釈」, 『朝鮮學報』 99・100合, 1981.
- 中吉功, 「新羅甘山寺石造彌勒・阿彌陀像について」, 『朝鮮學報』 9, 1956.

Dedicatory Inscriptions on the Amitabha Buddha and Maitreya Bodhisattva Sculptures of Gamsansa Temple

Nam Dongsin *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dedicatory inscriptions (*josanggi*) on the Amitabha Buddha and the Maitreya Bodhisattva statues of Gamsansa Temple, two masterpieces of Buddhist sculpture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In the first section, I summarize research results from the past century (divided into four periods), before presenting a new perspective and methodology that questions the pre-existing notion that the Maitreya Bodhisattva has a higher rank than the Amitabha Buddha. In the second section, through my own analysis of the dedicatory inscriptions, arrangement, and overall appearance of the two images, I assert that the Amitabha Buddha sculpture actually held a higher rank and greater significance than the Maitreya Bodhisattva sculpture. In the third section, for the first time, I provide a new interpretation of two previously undeciphered characters from the inscriptions.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sentence structures from the respective inscriptions and revising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author (*chanja*) and calligrapher (*seoja*), I elucidate the possible meaning of some ambiguous phrases. Finally, in the fourth section, I reexamine the content of both inscriptions, differentiating between the parts relating to the patron (*josangju*), the dedication (*josang*), and the prayers of the patrons or donors (*balwon*). In particular, I argue that the phrase “for my deceased parents” is not merely a general axiom, but a specific reference.

To summarize, the dedicatory inscription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when Kim Jiseong’s parents died, they were cremated and he scattered most of their remains by the East Sea. But years later, he regretted having no physical memorial of them to which to pay his respects. Thus, in his later years, he donated his estate on Gamsan as alms and led the construction of Gamsansa Temple. He then commissioned the production of the two stone sculptures of Amitabha Buddha and Maitreya Bodhisattva for the temple, asking that they be sculpted realistically to reflect the actual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ppearance of his parents. Finally, he enshrined the remains of his parents in the sculptures through the hole in the back of the head (*jeonghyeol*).

The Maitreya Bodhisattva is a standing image with a *nirmanakaya*, or “transformation Buddha,” on the crown. As various art historians have pointed out, this iconography is virtually unprecedented among Maitreya images in East Asian Buddhist sculpture, leading some to speculate that the standing image is actually the Avalokitesvara. However, anyone who reads the dedicatory inscription can have no doubt that this image is in fact the Maitreya. To ensure that the sculpture properly embodied his mother (who wished to be reborn in Tushita Heaven with Maitreya Bodhisattva), Kim Jiseong combined the iconography of the Maitreya and Avalokitesvara (the reincarnation of compassion). Hence, Kim Jiseong’s deep love for his mother motivated him to modify the conventional iconography of the Maitreya and Avalokitesvara. A similar sentiment can be found in the sculpture of Amitabha Buddha. To this day, any visitor to the temple who first looks at the sculptures from the front before reading the text on the back will be deeply touched by the filial love of Kim Jiseong, who truly cherished the memory of his parents.

Keywords: Kim Jiseong, Gamsansa Temple, Amitabha Buddha, Maitreya Bodhisattva, dedicatory inscription, *jeonghyeol* (頂穴), *hyo* (孝)